

# 다니엘서 - 제56번

요한계시록 17장의 신비를 밝히다: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최후의 예언

Jeff Pippenger

2024-01-20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발견된다. 그 장의 3절에서 요한은 천사가 요한에게 예언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해 "광야"로 이끌려 간다.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며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7:1-3.

요한 자신의 말에 따르면 "광야"는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끝의 때까지의 1,260년간의 교황권 통치를 가리킨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 그곳에서 그녀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 ... 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뱀의 낫을 피하여 자기 처소인 광야로 날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2:6, 14.

영 안에서 요한은 교황권 통치의 1,260년의 기간으로 옮겨졌다. 그 해들은 이세벨과 아합, 엘리야의 역사에서 3년 반의 가뭄으로 예표되었다. 그 해들은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것이 '첫째 진노'의 끝, 곧 이교와 교황권이라는 두 황폐케 하는 권세를 통해 성소와 군대에 가해진 전쟁의 종결 시점에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은 최근의 글들에서 제시되어 왔다.

"큰 음녀"는 이사야가 말한 두로의 음녀로, 상징적인 칠십 년 동안 잊혀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곧 "한 왕의 날들"이었다. 미국의 역사는 상징적 칠십 년의 역사로서,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인 바벨론의 통치 기간 동안의 칠십 년 포로 생활로 예표되었다. 그 역사 동안 두로의 음녀는 잊혀지게 되어 있었다. 그 역사 끝에 그녀는 다시 기억되어 다시 나아가 노래를 부르며, 이로써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다. 요한은 교황 권세의 심판을 보도록 영적으로 교황 통치의 역사 속으로 옮겨졌다. 음행한 제사장의 딸에 대한 판결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었다.

어느 제사장의 딸이든지 음행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레위기 21:9.

마지막 일곱 재앙 중 하나를 쏟은 천사들 가운데 한 명이 요한에게 준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환상에서, 그녀는 불에 태워졌다.

네가 그 짐승 위에서 본 열 뿔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6.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미국이 온 세상을 속여 또한 큰  
음녀이기도 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할 때 그들은 그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후 미국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에 나타난 열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 되며, 이  
묘사에서 미국은 그 음녀와 음행하는 첫 번째 왕을 상징한다. 그녀는 이후 모든 왕들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은 왕들 가운데 첫째 왕은 아합으로 상징되며, 그는 큰 음녀와 결혼했는데, 그 큰  
음녀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로 상징된다. 이세벨(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열 왕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들은 미국의 권세에 의해 교회와 국가의 동맹으로 강요당할 것이다.  
그 왕들은 음녀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물 위에 앉도록)  
허락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양과 싸우겠지만, 어린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충성된 자들이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이다. 네가 짐승 위에서 본 그 열 뿔들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2-18.

"열 왕"(유엔)은 실상 교황권을 미워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재난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으로 상황에 떠밀려 자신들의 잠깐뿐인 통치권을 교황권에  
넘겨준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속임수를 깨닫게 되면, 레위기의 율법을 성취하여  
그녀를 불로 태우는 도구가 된다.

"열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에게 가하는 박해를 통해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인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결박을 끊어 버리고, 그들의 줄을 우리에게서 던져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앉아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그때에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시편  
2:1-5.

땅의 왕들이 교황권을 위해 자행하는 박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도 가해졌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진실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들

예수를 대적하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는 주의 손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려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25-28.

그의 십자가 처형 때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일어섰던 "땅의 왕들"은, 그의 백성을 박해함으로써 다시 어린양과 전쟁을 벌이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을 가리킨다. 십자가에서 그 왕들은 그리스도를 "에워싼" "악인의 회중"이었고, 말세의 그의 백성에 대해서도 다시 그렇게 한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꿰뚫었나이다. 나는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응시하나이다. 그들이 내 의복을 자기들 사이에서 나누고,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나이다. 시편 22:16-18.

큰 음녀에게 심판을 내리는 열 왕들이 그녀를 불로 태운다. 이는 그녀가 제사장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음녀이기 때문이다. 그 왕들은 또한 '개들'로도 표상되며, 열 왕은 큰 음녀를 불로 태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죽음은 그녀가 성벽에서 내던져져 땅에 떨어져 산산이 흩어졌을 때 일어났고, 이어 개들이 와서 그녀의 살을 먹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한 뒤 창으로 내다보았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올 때, 그녀가 말하였다. "주인을 죽인 심리가 평안하였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누가 내 편이나? 누가?" 하니,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향해 내다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내려던져라."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내려던지니, 피가 담과 말들에게 묻었고, 그는 그녀를 짓밟았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뒤 말하였다. "가서 이제 이 저주받은 여자를 보고 장사 지내라. 그녀는 왕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서 그녀를 장사 지내려 하였으나, 해골과 발과 두 손바닥밖에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에게 알렸다. 그가 이르되, "이는 주께서 그의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요, 또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의 지경 들판 위에서 거름과 같이 될 것이므로, 사람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9:30-37.

열 왕들, 곧 유엔이며 그 우두머리 왕은 미국인데, 그들은 불로 그녀를 사르고 그녀의 살을 먹음으로써 교황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바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 주러 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요한을 광야의 역사 속으로 데려갔는데, 그것도 단지 광야 역사 가운데 아무 시점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맨 끝으로 데려간 것이다. 요한이 천이백육십년의 끝에 놓였음은 분명한데, 그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박해의 피에 취해 있었고 이미 음녀들의 어머니로 드러나 있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갔다.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참람된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으며, 그의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 요한계시록 17:3-6.

요한계시록 17장에 묘사된 "큰 음녀"이기도 한 두로의 음녀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노래들을 부르고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때가 올 때까지 잊혀질 것이었다.

1950년 이전에 출판된 신뢰할 만한 사전이라면 어느 것이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주홍색 옷을 입은 여인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늘날 세상은 가톨릭 교회를 기독교 교회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요한이 그녀를 보았을 때, 암흑 시대의 박해는 끝나가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이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사람은 마신 다음에 취하지, 마시기 전에 취하지 않는다.

1798년 수세기 전에 가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신교도들은, 1798년까지 이미 가톨릭 교회와의 친교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음녀들의 어머니'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였을 때, 일찍이 그녀와의 교제를 끊었던 교회들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이리하여 요한은 1798년으로 이끌려 갔는데, 그때 그 큰 음녀는 이미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교회들의 머리라고 하는 그녀의 주제넘은 주장을 이전의 개신교 교회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미 유혹해 놓았으니, 이는 유스티니아누스가 533년에 그녀를 그렇게 규정했던 것과 같았다.

1798년이라는 예언적 시점에서 천사는 이어 요한에게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왕국들의 마지막 묘사를 제시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태우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네게 말하리니,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땅에 사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있게 될 그 짐승을 볼 때 놀랄 것이다.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인이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이미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가 오면 잠시만 머물러야 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이되 일곱 중에 속한 자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7:7-12.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한 나라를 의미하며, 이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비밀은 그 짐승과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자에 관한 비밀이다. 그 짐승 위의 여자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이다. 그녀는 이세벨이며 그녀의 남편은 아합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 2:24.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지만, 함께할 때 그들은 한 몸이다. 짐승의 비밀은 그것이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곧 여자(교회)와 짐승(왕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왕국이다. 국가 통치와 교회 정치가 결합되고, 그 관계를 여자가

주도하는 것이 '짐승의 형상'이다. 요한에게 여자가 짐승에게 실려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는 그 관계를 주도하는 이가 그녀이기 때문이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8.

짐승과 여자는 함께 한 왕국(한 몸)을 나타내지만, 천사는 큰 음녀와 땅의 왕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그 짐승,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놀라게 될" 그 짐승은, 큰 음녀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의 교황권을 가리킨다. 그녀는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이 "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1798년에 치명상을 입도록 "작정되었다".

요한이 영적으로 1798년으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종결되는 상징적 70년의 끝에서 그녀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그녀는 다시 살아 '있다',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음행을 저지르며,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제17장은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왕국들에 대한 마지막 제시이며, 그러므로 성경 예언에서 그 왕국들이 처음 언급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 왕국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다니엘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쓰라'는 하박국의 명령을 성취한 두 개의 도표 모두에 실려 있다.

밀러파 신자들은 성경 예언 가운데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나타난 왕국들에 대한 이해가 옳았지만, 그들의 이해는 불완전했다. 다니엘서 2장에 관한 밀러의 '보석들'은 말세에 열 배 더 밝게 빛나는데, 이는 그것이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여덟째가 일곱에 속한다'는 계시의 최초의 언급도 밝혀 주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며,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을 제시함으로써 마지막 지상 왕국을 식별하고 있다. 그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사탄적 권세의 새로운 발현"을 상징한다.

'그들의 증언을 마치게 될 때[마치고 있을 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도록 되어 있던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사역의 마무리에 다가갈 즈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권세에 의해 그들을 상대로 전쟁이 벌어질 것이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던 권세는 수세기 동안 교황권을 매개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탄적 권세의 새로운 현시가 드러난다. 대쟁투, 268.

일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본문에서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무신론의 상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슬람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하며, 이슬람은 무신론이 아니다. 무저갱은 사탄적 현현을 상징한다.

나는 그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내게, 최면술은 마귀에게서, 무저갱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자들과 함께 머지않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 주셨다고 말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51년 7월 21일.

"마귀"에게서 온 것은 "무저갱"에서 온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권세이며,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놀라며 따를 것이다. "멸망"은 영원한 형벌을 뜻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으로 묘사되는데, 그곳은 그 짐승이 던져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붙잡혔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그 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다. 이 둘은 유향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다. 요한계시록 19:20.

제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곧 화이트 자매가 직접 교황권으로 규정된 존재가 지목된다. 그 본문에서 온 세상은 그 교황권의 짐승을 놀라며 따른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마치 죽을 상처를 입은 듯했고, 그 죽을 상처가 나왔으며,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놀라며 뒤따랐다. 요한계시록 13:13.

요한계시록 17장의 '땅에 사는 자들이 놀라워할' 그 짐승은, 일요일법이 곧 시행될 때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면서 드러날 사탄의 권세의 최후의 나타남이다. 17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의 모든 예언적 특징은 로마 교회를 지목하며, 이는 1950년 이전에 출간된 사전들이 그렇게 지목했던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 곧 짐승의 우상을 상징한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은 여자가 그 위에 타고 다스리는, 열 왕(유엔)으로 구성된 왕국이다. 그 여자는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로 규정된 교황권이다. 이 상징들이 규명된 후 우리는 1798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이 성경 예언 속 나라들에 대한 마지막 표상을 받도록 이끌려간 역사적 시점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그 왕국들과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들의 묘사를 다루겠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선 모든 나라들은 "감찰자와 거룩한 이"의 목적을 이루는지 여부가 드러나도록 땅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되었다. 예언은 바벨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의 위대한 제국들의 흥망을 추적해 왔다. 이들 각각의 경우에, 그리고 힘이 덜한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되었다. 각 나라는 시험의 시기를 거쳤고, 모두 실패하여 영광은 빛이 바랬고 권세는 사라졌으며, 그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했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 거부로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는 동안에도, 신성한 주권적 목적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음이 여전히 분명했다." 교육, 177.